고3 못지않은 '취준생의 방학'

7시면 일어나 학교로
취업 스터디후 알바까지
자격증·외국어·면접 준비 치열
대학 홈피 스터디 모집글 넘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강의실에 모여 취업프로그램을 수강하며 강사에게 지도를 받고 있다.

"취업스터디를 하기 위해 아침 7시에 일어나 학교로 향해요. 방학이지만 평소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공부할 것도 더 많습니다."

16일 광주의 한 대학교 도서관 스터디룸에서 만난 김모(27)씨는 올해 상반기 취업을 위해 취업스터디에 한창 열중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학생 3명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구성된 김씨의 취업 스터디그룹은 매일 아침 9시에 모여 최근 사회적 이슈와 시사상식 분야를 공부하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한다. 이렇게 시사상식관련 문제를 공부하고 난 뒤 오답 정리를 하고나면 서로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맞춰 쓴 자기소개서를 보고 첨삭을 해주는 시간을 갖는다. 고쳐야할 부분과 보충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서는 모의면접을 시작한다. "본인의 장점에 대해 말해주세요", "부역자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부역자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나요?","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를 말해보세요" 등 개인의 신상에 대한 질문부터 요즘 사회문제까지 다양한 범위 안에서 출제되는 질문들을 쉴새없이 쏟아내면서 모의면접을 하고나면 하루 스터디는 끝이 난다.

김씨는 "실전처럼 압박면접 연습을 해도 불안하고 초조하다"며 작년부터 이어진 어수선한 정국이 상반기 채용 때까지 이어져 취업의 문이 더 좁아질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취업준비생은 "요즘 스펙은 고고익선이라며 높을수록 좋다는 말이 유행이다. 스펙이라고 말하는 외국어, 자격증 공부를 언제까지, 얼만큼 해야할지 모르겠다 "고 입을 모았다. 이에 덧붙여 "곧 있으면 설날인데 취직을 못 해서 어른들 얼굴 보기도 불편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들 중 이모(26)씨는 "면접이나 필기시험 한번 보려고 서울에 다녀오기라도 하면 교통비, 숙박비, 밥값 등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부모님께 손 벌리기 미안해서 스터디가 끝나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정말 빨리 취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NCS기반직무능력표준 교육, 취업 에이스, 청년취업아카데미와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학생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져 대학 게시판에는 취업스터디를 함께할 사람을 구하는 글로 빼곡하고, 방학임에도 도서관은 취업공부를 하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다.

한편,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지난해 4·4분기 실업자 수는 2만2000명이다. 이 가운데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는 1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실업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글·사진=전은재기자 ej6621@

? 취업스터디
취업준비생들이 모여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면접을 준비하는 등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소모임을 뜻한다.

오늘의 날씨

해뜸	07:40	달뜸	23:45
해짐	17:46	달짐	11:13

감기 조심하세요

대체로 맑겠으나 가끔 구름이 많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구름많음	-2/7	보 성	구름많음	-3/7
목 포	구름많음	-1/6	순 천	구름많음	-1/8
여 수	구름많음	0/7	영 광	구름많음	-4/5
나 주	구름많음	-5/7	진 도	구름많음	1/6
완 도	구름많음	0/7	전 주	구름많음	-3/6
구 례	구름많음	-4/7	군 산	구름많음	-3/6
강 진	구름많음	-2/7	남 원	구름많음	-5/6
해 남	구름많음	-3/6	흑산도	구름많음	3/7
장 성	구름많음	-4/6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먼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5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	북~북동	0.5
	먼바다(동)	북서~북	0.5~1.5	북~북동	0.5~1.0
	먼바다(서)	북서~북	1.0~1.5	북~북동	1.0~1.5

◇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높음
체감온도	관심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1:07	05:59
	23:39	18:24
여수	06:37	00:40
	19:02	21:58

◇ 주간 날씨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7	-1/2	-3/5	-2/2	-4/2	-4/4	-4/6

남악 롯데쇼핑몰 분쟁 '점입가경'

목포시 "오수관 무단 연결 사용" 롯데 검찰 고발

목포시는 남악하수처리장 무단 사용을 이유로 롯데복합쇼핑몰과 쇼핑몰 운영자 GS리테일 등 2곳을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개장한 전남도청 인근 무안 남악신도시 롯데복합쇼핑몰에 반대하는 목포지역 대응이 사용승인 취소 촉구, 감사원 감사, 행정대집행 요구 등으로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목포시는 남악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한계를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는데도 쇼핑몰과 운영자인 GS리테일이 남악하수처리장에 오수관을 무단으로 연결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일에는 무안군과 쇼핑몰, 쇼핑몰 부동산 신탁은행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하수배출 금지 가처분을 냈으며 현재 계류상태다. 또 무안군에도 쇼핑몰 사용승인 취소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하수처리 시설 관리자인 목포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무안군이 건물 사용 승인을 한 것은 하자 있는 행정조치라는 주장이다.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운동을 벌인 목포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거세다.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대책위 소속 상인 100여명은 이날 오전 목포시청 앞 광장에서 롯데쇼핑몰에 대한 시의 행정대집행을 촉구했다.

상인들은 "쇼핑몰로 인해 목포 상권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며 "목포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롯데쇼핑몰의 불법 하수처리 행위를 즉시 중단시켜야한다"고 요구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집회현장에서 "쇼핑몰 관할권을 무안군이 갖고 있어 목포시의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시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6일 무안군의 쇼핑몰 인허가와 사용승인 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자유학년제 활성화·마을교육공동체 확대

광주 교육정책연구소 보고회…친환경 운동장 조성 등 연구 계획

'자유학년제 활성화·마을교육공동체 확대·청렴도 향상까지.'

광주 교육정책연구소는 최근 광주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올 해 수행할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청의 정책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연구과제를 들여다보면 교육 현안의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연구소는 우선, 자유학년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광주교육청이 지난 2015년부터 타 시·도보다 앞서 '자유학기제'를 전면 도입한 만큼 자유학년제 도입에 따른 의견, 교육계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효율적 운영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진행하는 한편, 자유학기제에 대한 운영 성과가 긍정적이라는 데 주목, 올해 3월부터 400개의 연구·시범학교를 선정해 일반학기에도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 있다.

광주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급증하면서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다문화 실태분석과 교육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청렴도가 3위(2015년)에서 16위(2016년)로 급락한 데 따른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도 진행된다. 광주교육청은 청렴도 조사결과, 내부청렴도의 경우 2위(2015년)에서 10위(2016년)로 급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초등 돌봄교사 고용 안정 촉구

광주 교육공무직노조 기자회견…"낙찰제 부작용 대책 필요"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한 공개 입찰제가 시행되면서 저가 낙찰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는 17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돌봄교실 공개입찰제가 도입된 이후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 프로그램 공급 및 교재·교구의 부실화 우려가 끊이질 않는다"면서 공개입찰로 인한 위탁 운영 대신, 직영 전환을 요구했다.

돌봄교실 사업 위탁 업체들이 저가로 낙찰받은 뒤 이윤을 남기기 위해 프로그램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등 부작용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돌봄 교사들이 용역이라는 이유로 매년 2월이면 집단해고 위협에 시달린다"면서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광주지역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돌봄교사는 311명 중 무기계약직(152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탁 교사 133명,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교사 26명 등 159명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형편 등으로 모든 돌봄교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무기계약직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돌봄교실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방과 후 학교에 마련된다. 별도 교실에서 오후 5시까지, 또는 밤 10시까지 돌봄교사들이 학생들을 살펴주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전남대 등록금 9년째 동결

전남대는 지난 16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키로 결정했다. 전남대는 이로써 지난 2009년부터 9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전남대의 지난해 연간 등록금 평균액은 412만7000원 수준이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